

도내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 관리 총력

전북도, 신도 1만3260명 중 1만1521명 유선 조사 결과 코로나19 유증상자 136명으로 나타나

전북도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추가 입수한 신천지 교육생 2125명을 포함한 도내 신천지 신도 1만3260명 중 86.9%인 1만1521명에 대해 유선 조사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유증상자가 136명(가족 27명 포함)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는 유증상자에 대해 검사와 자가격리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한편 나머지 신도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유증상자는 신도 본인 109명, 신도 가족 27명으로 136명 증상이 의심되는 것으로 조사돼 자가격리 조치하고 관찰 선별진료소에 검사토록 하는 등 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천지 신도 및 가족 중 유증상자는 시군별로 전주 49명, 군산 42명, 익산

38명, 정읍 1명, 남원 3명, 김제 2명, 부안 1명이다.

이중 8명이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됐고, 나머지는 검사를 추진 중으로 조속히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조사가 진행된 신천지 신도 중 1월 20일 이후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한 이는 41명이고, 시군별로는 전주 21명, 군산 5명, 익산 11명, 김제 1명, 완주 3명이다.

이중 증상이 있는 걸로 파악된 1명은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고, 증상 유무는 지속 모니터링 중이다.

전북도와 각 시군은 1만3260명 중 1만1521명에게 전화 연결을 시도해 89.7%인 1만337명이 응답했고, 1184명은 무응답하거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도는 통화 연결이 되지 않으면 관찰 경찰서의 협

조를 얻어 소재지를 파악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조사할 계획이다.

도는 유증상자들이 선별진료소를 통해 코로나19 증상이 확인될 때까지 자가격리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또 유증상자의 선별진료소 검사 시 가족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1차 전수 조사 후에도 2주간은 코로나 증상 여부를 시군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증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1만228명에 대해서도 앞으로 2주간 매일 2회에 걸쳐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이미 확보한 명단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전수조사와 관리를 진행하는 노력과 함께 신천지 명단의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8일 전북도는 방대본으로부터 입수한 도내 신천지 명단 1만135명

문화체육관광부 자료(2019년 1월 기준)의 1만1851명보다 적고 교육생 등이 빠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정부에 추가 명단확보를 건의했고, 27일 저녁 정부로부터 신천지 교육생 명단 2125명을 추가 입수했다.

도는 특히 송하진 지사의 지시로 지난 2월 27일 오후 7시 37분께 '신천지 교인들이 전화를 받아줄 것과 도민들에게 주위의 신천지 교인분들을 알려 줄 것'을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해 도민들의 제보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신천지 신도 명단 확보와 조사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하겠다"며 "접수된 명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절대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고 코로나19 예방업무에만 사용된 뒤 즉시 폐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 경제 발전 견인할 선도기업 모집

전북도 · 전북테크노파크, 4월 3일까지 신청 받아

전북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 경제 발전을 견인할 '2020년 신규 선도기업'을 모집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전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허리 역할을 하는 전북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직전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단, IC, 농·생명 업종은 25억원 이상)인 전라북도내 분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서를 보유·운영하는 전라북도 지역산업 제조업분야 기업이다.

신청방식은 온라인 접수를 통한 1차 서류심사를 거쳐 기업 환경과 경영상태 등을 심사하는 2차 현장평가, 신청기업 CEO의 경영전략 발표 및 인터뷰로 혁신기반, 혁신활동, 기술경영 등을 확인하는 3차 인터뷰 심사까지 마치게 되며, 마지막으로 '선도기업 운영위원회'

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해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2024년까지 5년 동안 기술개발, 현장 애로기술 해결, 마케팅과 맞춤형 컨설팅뿐만 아니라 인력채용 플랫폼, 사내창업, 리더 혁신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모집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이다.

'선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4월 3일까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로 신청이 가능하며,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도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선도기업이 지속적으로 지역 산업 경제의 성장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기업에서 전국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의료기사연합회, 코로나19 대응 위해 3백만원 상당 방역물품 기탁

기탁 물품 도내 선별진료소 등에 배부키로

전북도 의료기사연합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백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기탁했다.

도 의료기사연합회는 지난달 28일 도청에서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대응에 힘을 보태고자 방역물품(손소독제) 400개를 전북도에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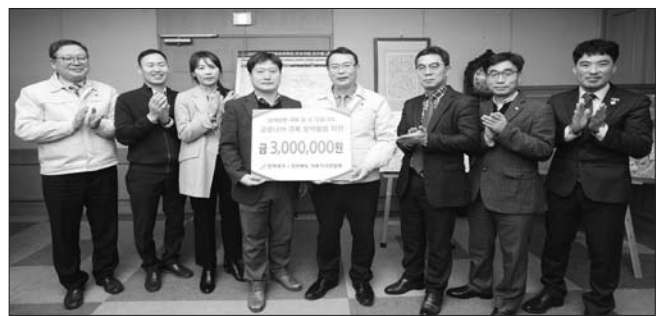
전북의료기사연합회는 8개 의료기사 협회(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공공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안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구성된 연합단체다.

이번 전달식에는 최용범 행정부지사,

이형섭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전북도회장, 김은성 대한방사선협회 전북도회장, 배정현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북도회장, 정유진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전북도회장이 참석했다. 기탁된 물품은 도내 선별진료소 등에 배부될 계획이다.

이형섭 대한임상병리사 전북도회장은 "이번 사태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회원인 보건의료인들이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도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도에서도 방역물품 수요



전북도 의료기사연합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백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기탁했다.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 의료기사연합회의 기부가 큰 도

움이 될 것이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진성 기자

폭력피해이주여성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도, 상담소 공모사업 선정...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등 확대

전북도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한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도는 이주여성이 가정·성폭력, 부부갈등 등에 처했을 때 한국어 및 출신 국가 언어로 전문적인 상담과 다양한 지원을 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제1회 추경에 2억81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해 상반기 중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는 상담사 등 8명(이주여성 4명)을 채용해 모국 어상담, 통·번역, 임시보호, 의료, 법률 등 연계 서비스 제공 및 구제수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자 안전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담, 사례관리, 긴급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무교육, 전문가 슈퍼비전을 통해 종사자 역량강화를 실시하며, 인권친화적 다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폭력에 방지교육, 인권포럼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위기에 처한 결혼이주여성 자

립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위기지원전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을 확대한다.

다문화가족위기지원전문서비스는 학계, 가정폭력 지원기관, 법률, 의료(정신과의사), 아동보호 등 분야별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사례별로 전문가자문단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상담사·사례관리사 역량강화교육 및 슈퍼비전 실시, 소수언어 통역비를 지원한다.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의지 고양을 위해 자립지원금을 6명에게 주거마련, 가전제품 및 가구, 학자금, 취업훈련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강우 도 대외협력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14개 시군 종사자와 관계자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선정으로 한층 더 강화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다문화가족 인권보호와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도선관위-다문화가족지원전북거점센터, 협약 체결

전북도선관위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북선관위 상황실에서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전북거점센터와 다문화유권자의 선거·정치 참여의식 증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북선관위 김중두 홍보과장과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전북거점센터 이지훈 센터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전북선관위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및 선거체험 ▲방문교육지도사 대상 활동 안내 ▲리플릿 및

홍보용품을 제공하기로 하고,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전북거점센터는 ▲다문화가족 연수 및 방문교육지도사 대상 안내 시간 배정 ▲연수 장소를 제공하기로 협약했다.

특히 올해는 다문화가족을 방문하는 방문교육지도사를 활용해 선거정보 및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안내하는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당분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상황이 호전 또는 종료된 후 민주시민연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도, 구제역 · AI 특별방역대책기간 1개월 연장

전북도는 2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오는 3월 말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철새의 북상기를 맞아 이동이 증가하고, 중국과 대만 등 주변국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강화군에서 20건의 구제역 감염현황(NSP)가 검출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도는 특별방역기간 중 추진해 오던 가축방역상황실(24개소)과

거점소독시설(32개소)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해 주요 전파요인인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3월말까지 유지하고, 사전검사를 후 이상없을 경우에 한해 권역 밖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는 철새도래지 매일 소독, 방역취약 농가 예찰·검사 강화, 산닭 판매소 월 2회 의무 휴업·소독 등의 방역조치도 현 수준에서 최대한 유지한다. /김진성 기자

모 집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환 영
스피치 · 긴장해소 · 웃음치료(힐링) · 면접		
<p>현대는 소통의 시대, 능력의 시대, 이미지 시대, 감성의 시대입니다.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복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현대인의 필수로 자리 잡은 본 과정에 주저하지 마세요. 저렴한 등록금으로 각 평생교육원에서 즐겁게 주, 야간반으로 학습합니다.</p>		
<p>▷ 전담교수 주요경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한국스피치,음변협회 전북회장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BC, ITN 출연 및 강의자 스피치 칼럼리스트 전주매일 부사장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 노하우" 등 		
<2020학년도 1학기 모집>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주,야간)	전주, 임실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주,야간)	전주, 완주, 진안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주,야간)	군산, 부안, 서원
전북과학대학교	스피치 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치료 등)	정읍, 고창
원광보건대학교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익산, 완주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치료(야)(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치료(야)(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p>상담전화 (전제)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합니다.</p>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